

녹십자, 타이에 혈액분획제제 공장 건설

녹십자(대표 허일섭·조순태·이병건)는 타이 뱅프라(Bang Phra) 지역에 혈액분획제제 공장을 세우고 기술을 전수하는 728억원 상당의 공급계약을 타이적십자(Thai Red Cross Society)와 체결했다고 1월4일 공시했다.

계약규모는 녹십자의 2011년 별도 매출액의 10.4%에 해당하는 규모이며, 계약기간은 2013년 1월4일부터 2015년 9월30일까지이다.

<화학저널 2013/01/04>